



해왔으면 교장 공모제 신청시 좀 더 학교구성원의 열망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 
본교 교장의 퇴직이 2020년 2월말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본교에 대한 문의나  
공모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분이 한 분도 없었음.

- 질의: 교장 공모제를 신청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려가 가능한지
- 답변: 교장 공모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지정을  
철회할 수는 있으나 단서를 달아 반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
- 질의: 학부모가 초빙 교장에 대한 서류를 볼수 있는지?
- 답변: 지원자의 자기소개서, 학교운영계획서는 익명화하여 학교와 교육청 홈  
페이지에 공지되고 서류심사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, 학교  
운영위원이 추천하는 학부모 40~50%, 교직원 무기명투표에서 선출된 교원 30~40%,  
나머지 위원은 본교 학부모 졸업자등 학교가 추천 하는 자 10~30%로 구성됨
- 질의: 찬성측 학부모가 45%가 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
- 의견: 공모제에 대한 취지는 매우 만족하여 찬성쪽 의견이 많은 듯하나, 규모  
가 본교같이 큰 학교는 공모제 교장이 왔을 때 유기적으로 학교가 돌아가기  
보다는 한사람의 교육철학이 반영되어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음
- 의견: 부모의 입장에서 공모제가 좋을 것 같아 찬성의견을 제출했으나 논의  
과정에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니, 우리 아이들의 학교  
생활에 혼돈을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가 커서의견을 수정해야겠다는 마음이 듦
- 의견: 찬성측 부모들이 찬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나, 지금 본교가 자율적으로  
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나 이의 제기가 없고 학교운영이  
잘 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, 초빙형 공모교장 신청보다는 학사운영에 대한 홍보와  
의견수렴이 기회를 확대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함
- 초빙교장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
- 의견: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
- 초빙교장제를 하려면 교직원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하며, 준비기간을  
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
- 초빙교장공모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방안
-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학부모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학부모들이 의견이 충  
분히 반영되도록 서로간에 협의하도록함

◆ 무기명투표 실시:

7명의 반대로 교장공모제 신청을 반대함

기록자:간사 류병래 류병래